



‘순천만가리맛조개’ 수산물 지리적표시 25호 품목 등록

전국 최초...청정갯벌의 특성·품질 우수성 인정



순천시는 순천만에서 생산되는 가리맛조개가 수산물 지리적표시 25호 품목으로 등록 되었다고 밝혔다. 가리맛조개가 등록된 것은 전국 최초다.

지리적표시란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농수산품의 명칭·품질·특징 등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했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다. 이것은 지역 명칭과 품질을 함께 붙여 사용하고 배타적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다.

순천시는 2016년부터 순천만가리맛 조개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쳤고 이번에 순천만 청정갯벌의 지리적특성과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등록을 확정짓게 되었다.

전국에서 제일 맛있고 믿을 수 있는 가리맛조개는 순천만가리맛조개 라는 공식이 성립된 것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에서는 연간 150여톤의 가리맛조개가 생산되고, 이중 80%는 일본으로 수출되어 약 15억의 수출고를 올리고 있다”면서 “수출물량 확대를 위해 중간육성장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품질관리를 통해 신선하고 질 좋은 순천만가리맛조개가 공급 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종영 기자

순천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조기 운영

비상근무체계 돌입...시민 관심과 협조 당부

순천시는 최근 산불방지대책본부 부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차단과 조기 발견을 위해 봉화산 등 9개 산불감시소와 20개 읍면동에 감시원 42명을 배치하였고 산불감시카메라 9

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1대와 진화대 30명이 신속히 출동하여 초동진화하는 진화태세도 구축하였다.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

로 전체 산불발생건수의 77%를 차지하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산불예방을 위한 마을별 순회교육과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담배꽂이를 버리는 등산객의 부주의한 행위와 농·산촌 주민의 소각행위가 한순간에 녹색산림을 잿더미로 바꿀 수 있다”며 “시민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나주시보건소, 걷기 운동 확산 통해 주민 건강증진 도모

밸런스워킹PT교육연구소와 협약...전 시민 워킹홀릭 운영



나주시는 걷기 운동 확산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최근 보건소 회의실에서 ‘밸런스워킹PT’ 교육연구소와 ‘전시민 워킹(Walking)’ 교육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밸런스워킹PT’란 스스로 재활하고 치유하는 방식의 운동이다.

자세교정, 무릎개방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재활 및 유산소·무산소 운동 등 남녀노소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2017년 대한인국브랜트대상 건강운동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금번 협약을 체결한 나주시보건소는 밸런스워킹PT교육연구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걷기 지

도자를 양성, 주민 주도형 걷기 운동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지역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전 시민의 생활터별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해병 보건소장은 “밸런스워킹PT 프로그램 운영은 15개소 보건진료소를 기점으로 전 시민의 건강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여 만성질환 예방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 읍면 순회방문 군민과 행복공감대화

구충곤 군수 주재 오늘부터 26일까지 군민과 소통

화순군이 새해를 맞아 읍면 순회방문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화순군은 16일 동면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과 군수와의 마음을 여는 행복공감대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별뿔화순의 주인공은 군민 여러

분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화는 읍면 회의실과 복지회관에서 도·군의원을 비롯해 읍면 기관단체장, 노인회장,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의 대표를 초청해 1일 2개 면에서 열린다.

행복공감대화는 읍면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읍면 행정지원담당 부서장의 운영방향 설명, 구충곤 군수

주재로 군민과의 마음을 여는 행복공감대화에 이어 복지시설, 농공단지 등 현장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특히 내린 소개와 인사말씀을 즐기고, 군민과의 대화 시간을 늘렸다.

또한 좌석을 ‘도’ 형태로 배치하고 구충곤 군수가 직접 토코방식으로 진행해 자연스런 대화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 신대지구 계획 변경 공청회 요청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은 신대지구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실시 요청’ 공문을 순천시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임종기 의장은 현재 삼산중학교 이전 부지가 항해로 북쪽으로 결정됨에 따라 신대지구 북쪽에만 승평·삼산중학교 두개의 중학교가 위치하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서

항해로 남쪽에 중학교가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삼산중학교 이설 시 고등학교 시설 기준으로 건립할 것을 전남도교육청에 건의하였으나 “향후 중학교 추가 신설 및 고등학교 전환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함께 임종기 의장은 “수 차례에 걸쳐서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

을 시에 요구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신대지구 중학교 위치문제, 외국인 교육기관 건립부지 문제, 항해로·좌야로 등, 주간선도로 확장문제, 공공시설 유지문제를 비롯한 누락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종영 기자

광양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확대

광양시는 중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는 수확기에 농산물이 한꺼번에 출하되는 것을 예방하고, 신선도를 유지해 상품성을 높이는 등 활용도가 높아 농업인들로부터 큰 각광을 받고 있는 보조사업이다.

시는 올해도 사업비 2억5천2백만 원을 투자해 42동의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한다.

특히, 많은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16.5㎡, 33㎡ 규모의 중형 저온저장시설은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저온저장시설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저온저장고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와 함께 활용도를 향상을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단계부터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공업체를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고 있다.

광양=김종권 기자

광양시, 행복한 친환경 급식환경 조성

무상급식·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등 사업 추진

광양시가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시비 80억 원 포함한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친환경 광양매실정공급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도 지역의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특히, 2004년부터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60%를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 친

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에 5억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육시설에 한해서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100%를 지원한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성장기의 영·유아에게 유기농쌀, Non-GMO 콩나물, 두부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아이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급식 환경 조성과 함께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한 도시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학생과 학부모, 영상공사들로부터 큰 만족을 얻고 있는 ‘친환경 광양매실정 공급사업’에도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광양=김종권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